

투데이 칼럼

친절한 스피치 삶

사람을 만나 관계를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친절할까', '얼마나 인상이 호감인가?'를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관계의 중요한 요소인 소통 교육도 친절교육과 인성교육, 스피치 교육을 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친절(親切)에 왜 끊을 절(切)이 있는지 알아보면 일본의 어느 전쟁에서 패한 장수들은 합복자살을 해야 했는데 그때 심복이나 친구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칼로 목을 베어주었다는 데서 친절이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

영어의 친절하다는 단어인 'kind'에 동정심 있는 이란 뜻도 있었고 친한, 친숙한 의미의 'friendly'에도 '남을 돕는'이란 뜻이 있다.

친밀 'intimacy'란 어원은 'intimus'로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을 뜻한다.

즉, 친밀감은 '사람의 정신적 공간 중에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이다. 서로의 내면까지 솔직하게 표현하면 친밀감이 깊어진다는 것이다.

스피치 용어 중에도 'cushion



김 양 옥

전주교대 평생교육원 교수

speech'가 있는데 상대에 세심한 배려와 정성이 느껴지는 부드러운 말을 뜻한다.

프랑스의 '파스칼'은 '따뜻한 말들은 많은 비움이 들지만 많은 것을 이룬다.'라고 말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3개월간의 겨울을 따스하게 해 준다.'는 속담이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다. 여기서 류시화 작가의 책에 있는 이야기를 소개한다.

"길가에 좌판을 벌여놓고 울고 있는 노점상을 내려다보던 유명한 탈렌트 김해자씨가 옆에 앉아

서 같이 울기 시작하고 팔찌 하나를 사고는 300 달러를 주었다. 왜 큰 돈을 주었냐고 묻자 그녀는 '누구나 황제를 하고 싶어 한다. 그 노점상이 내 돈으로

황제를 해서 식구들과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김해자씨의 인자한 얼굴은 그런 그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친절하 스피치를 강의 하고 있지만 친절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다.

저는 다리가 불편해서 살갑게 일어나 맞이하지 못하니 처음 보는 분들은 오해를 한 것 같아 항상 아쉽지만, 미안한 생각도 든다.

누구든지 교통사고나 길가 등에서 넘어지면 달려가 도와주고 친절하 말 한마디 위로의 스피치를 하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요사이 젊은이들은 사고를 보고도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았다. 친절도 용기와 긍정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친절하 생활을 하려면 좋은 인성과 스피치를 터득해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입말과 몸말, 글말로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

어느 직장이나 단체, 봉사인의 모임 등에서도 일원이나 구성원들이 친절하고 비전 있는 용기의 말로 생활하면 더 만나고 싶고 가고 싶은 곳으로 변할 것이 분명하다.

현재 우리의 서비스 수준이나 남을 대하는 태도를 되돌아보고 서로가 베푸는 친절하 세상이 더 따뜻하고 살맛나는 곳으로 변화시키는데 내가 먼저 앞장서자.

내가 친절하 생활을 할 때 이 친절하는 부메랑이 되어 더 큰 친절로 되돌아오고 생활에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 단 한번 왔다가 가면서 더 베풀 걸, 더 베풀 걸, 더 사랑할 걸 하면서 가지 말고 후회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 친절하하고 베푸는 나눔의 삶으로 보람 있는 삶, 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보자.

사설

어르신 AI 기반 돌봄 서비스

노인과의 대화를 기억하고 안부를 묻는 인공지능(AI) 서비스가 돌봄 서비스의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 주요 IT 기업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독거노인 고독사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돌봄 서비스' 제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독거노인의 목숨을 구하기도 한다. 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의 활동 여부를 응급안전안심 시스템으로 확인하면서 가능한 일이다.

어느 할머니는 올 여름 연이은 폭염으로 탈진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자칫 위험한 순간에 홀몸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인공지능 시스템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해당 지자체의 응급관리요원은 응급안전안심 CCTV에 13시간 동안 할머니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자 우선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었다.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집안을 확인했다.

그 결과 교열로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하고 바로 응급실로 이

송했다. 또 다른 할머니는 자택에서 어깨뼈가 골절되는 낙상 사고를 당했다. 이번에도 응급 안전안심 활동감지 시스템에 할머니의 활동이 감지되지 않자 즉각적인 현장 구호 조치가 이루어져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

해당 지자체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복지 공백 해소에 나섰다.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최초로 관내 독거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AI실버케어 시스템, 가상상담원 안부전화 서비스인 AI복지사, AI 스피커 등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SKT·LG유플러스 등 주요 IT기업들은 AI 기술을 활용해 건강 및 정서 관리 관련 돌봄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안전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다.

이는 AI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 식사 습관, 수면 시간 등 주요 정보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AI 지능형 통합 돌봄 케어모델 구축에 적극 나서

어느 화가 4인의 스승 사랑

최근 전주에서 화가 4명이 스승 화백을 추모하는 전시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교(敎) 백준기 교수님을 기리며"란 주제로 한 '4인 소강회전'이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제자 4인은 이점재, 이재숙, 장순자, 진양선씨 등이다. 이들은 모두 백준기 교수에게서 그림을 배운 제자들이다. 학창시절부터 스승의 가르침을 잊지 못한 제자들은 모두 평생 직장이었던 교육계를 떠나면서 본격적으로 그림 작업을 시작했다.

모임 명칭은 스승의 호를 따서 소강회(素江會)로 했다. 소강(素江) 백준기(白俊基) 화백은 1929년 정읍군 칠보면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미술대를 졸업한 그는 1959년 제4회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입선했다.

그 뒤 춘천교대, 전주대, 원광대, 전주교대 등에서 제자를 가르쳤다. 1990년 전주교대에서 정

년퇴임한 백 교수는 전주 용머리교개 인근에 <용두화실>을 마련하고 꾸준히 제자들에게 그림을 가르쳤다.

올해는 백준기 교수가 세상을 떠난 지 5주년이 되는 해이다. 제자 4인은 스승의 정신을 받들고 오로지 기쁘게 충실한 연마과정으로 작업한 작품을 들고 전시장 나들이에 나섰다.

제자 4인도 평균 나이 73세를 넘기고 있지만 실험적인 작업도 마다하지 않았다. 연필과 목탄, 수채, 파스텔, 아크릴, 유채 등 여러 재료를 활용했다. 특히 백 교수의 아내인 최재범 수필가의 도움을 받아 백 교수의 유작도 전시했다.

제자들은 "백준기 선생님은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울퉁한 신념으로 형태와 색상, 그 아름다움의 근원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회고한다. 한편 소강회(素江會) 회원 4명은 평생 그림을 그려 왔지만 개인전 한 번 열지 않은 제자의 작가들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난마돌 산사태 지역 수색하는 日 구조대



19일 일본 남부 미야자키현 미타타시 산사태 현장에서 구조대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이 지역을 강타해 정전, 침수, 교통 마비 등의 피해가 속출했다.

집단 매장지에서 발굴되는 우크라이나 군인 시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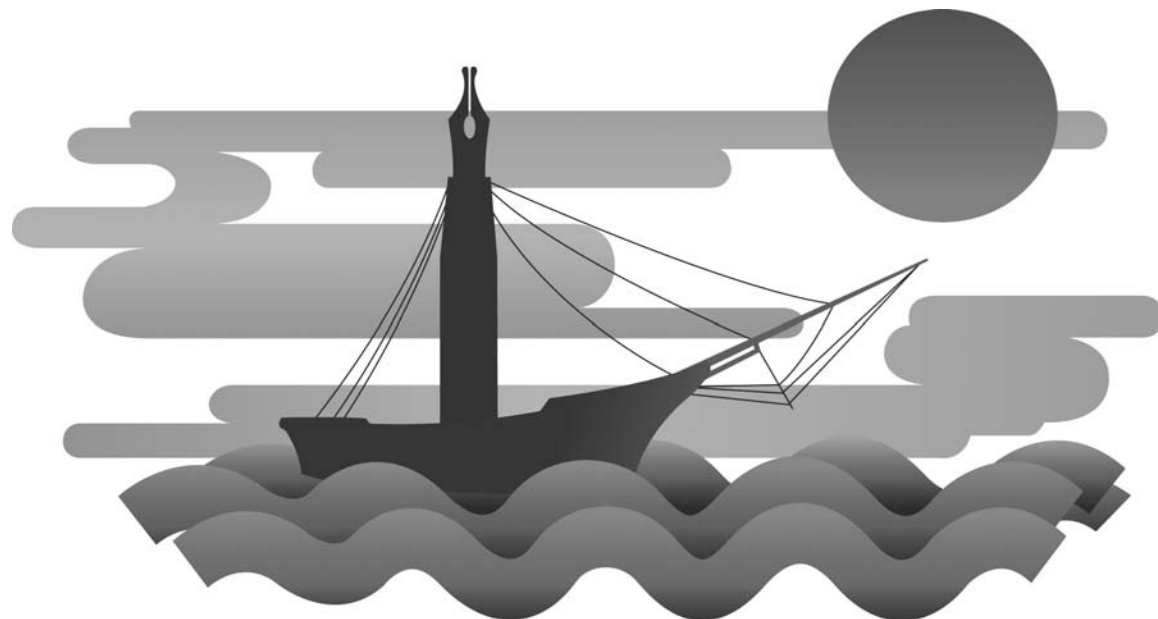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히르키우주 이지울의 집단 매장지에서 조사단이 우크라이나 군인의 시신을 발굴하고 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지역 인근 집단 매장지에서 시신 440구를 발견했으며 이 중 많은 시신의 사지가 부러지고 목에 밧줄이 감겨 있는 등 고문과 학살의 흔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